

# '1980년 5월' 열흘간의 광주, 그리고 끝나지 않은 역사

문화로 만나는 '오월'  
(4) 오월 연극 '나는 광주에 없었다'

18일까지 ACC 예술극장 극장1  
광주 지킨 이들의 숭고한 희생 그려  
관객, 시민군·목격자로 무대 참여  
시민군 추모·연대의 메시지도

"우리가 사랑했던 것, 괴로움을 당했던 것, 아무  
것도 헛됨은 없어라"

1980년 5월 27일, 최후까지 옛 전남도청을 지  
키며 산화한 시민군 고(故) 이정연 열사의 일기  
속 한 구절이다. 당시 그는 만 20세, 이제 막 스무  
살의 청년이었다.

그의 말대로, 헛된 것은 없었다. 1980년 광주를  
지킨 이들의 피와 숭고한 용기는 이 땅 깊숙이 스  
며들었다.

그리고 45년의 세월이 흘러 2025년 대한민국을  
지켜내는 힘이 됐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말한다.  
"우리는 5·18 광주에 빚을 졌다"고.

어전처럼 끝나지 않은 광주의 역사가 무대 위에 펼  
쳐진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의 5월 레퍼토리 공  
연 '나는 광주에 없었다'가 오는 15일부터 18일까  
지 예술극장 극장1에서 관객과 만난다. 연출은  
2018 평창 동계패럴림픽 개·폐회식 연출을 맡았  
던 고선웅 감독.

작품은 1980년 5월 18일부터 27일까지 열흘간  
의 광주를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재현한다. 전남대  
정문에서 시작된 5·18민주화운동의 흐름을 따라  
가며, 금남로로 나선 조대부고 남학생, 광주에 머  
물다 발이 묶인 부산 여대생, 계림동 주민, 빵집 아  
저서 등 평범한 시민들의 시선을 통해 1980년 5월  
의 광주를 생생하게 그려낸다.

무엇보다 이 작품의 가장 큰 특징은 관객 참여형  
공연이라는 점이다. 관객들은 무대 속 '시민군'이



5·18을 소재로 한 공연 '나는 광주에 없었다'가 오는 15~18일 ACC에서 펼쳐진다. <ACC 제공>

되거나 '목격자'로 참여하며, 무대와 관객석의 경  
계를 넘나들게 된다. "독재 타도, 계엄 철폐, 민주  
평화" 등의 구호를 함께 외치고, '빛속의 여인',  
'남행열차' 같은 당시의 노래를 부르며 극 속에 자  
연스럽게 스며든다. 공연의 마지막에는 촛불을 들  
고 민주주의를 위해 산화한 이들을 기리는 시간도  
마련된다.

이러한 연출 방식은 과거의 사건을 현재와 이어  
주기 위한 시도다. 5·18을 직접 경험하지 못한 세  
대는 무대 참여를 통해 그 시절의 감정과 분위기를  
체감하게 되고, 당시를 기억하는 이들에게는 '아  
직 잊지 않았다', '감사하다'는 위로와 연대의 메  
시지를 전한다.

ACC 5월 대표 레퍼토리로 자리잡은 이 작품은  
2020년 초연 이후 관객들의 꾸준한 사랑을 받아왔  
다. 올해는 5·18민주화운동 45주년을 맞아 객석을  
518석으로 확장하고, 무대와 객석 구조를 일부 조정  
해 무대 디자인의 완성도와 안정성을 한층 높였다.

또한 수도권 관객을 위한 '메모리얼 투어' 프로  
그램도 마련했다. 1박 2일 일정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15~16일, 17~18일 두 차례 운영된다. 참여  
자들은 공연 관람은 물론 국립5·18민주묘지, 5·18  
자유공원, 5·18민주화운동기록관, 전일빌딩245,  
양림동 역사문화마을 등을 둘러보게 된다. 보다 깊  
이있는 체험을 통해 5·18의 정신과 역사적 의미를  
더 생생하게 느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광주와 5·18민주화운  
동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SNS에는 "그때의 광주는 얼마나 무섭고 외로웠을  
까"라는 글들이 잇따라 올라오며, 당시를 직접 겪  
지 못한 세대들도 광주의 아픔에 공감하고 감사를  
전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공연 '나는 광주에 없었다'  
속한 대사가 깊은 울림을 전한다.

"1980년 5월, 우리는 광주에 없었습니다. 5월  
18일부터 27일까지 열흘 간 광주는 차단되고 격리  
된 섬이었습니다. 완전한 고립 속에서도 의지를  
굽히지 않고 민주화를 위해 싸운 숭고한 용기와 희  
생으로 이 땅에 자유와 민주주의가 자리잡을 수 있  
었습니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 '기술과 예술의 결합' 임용현 작가와 대화

'Post Genesis: 새로운 연대' 전 참여 작가... 내일 미디어 라운지

디지털과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인간과 세  
계에 대한 새로운 관점과 사유를 요한다. 광주미  
디어아트플랫폼(G.MAP, 지맵)에서 진행 중인  
'Post Genesis: 새로운 연대' (6월 15일까지)는  
인간과 비인간이 공존하는 미래의 가능성을 조망  
한다.

현재 전시에 참여하고 있는 임용현(사진) 작가  
와의 대화가 마련됐다. 오는 16일 오후 2시 미디  
어 라운지.

임용현 작가는 전시의 주요 개념과 작업 과정 등  
에 설명할 예정이다. 또한 기술과 예술의 결합이

다가오는 세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어떤 메시지  
를 던지는지 관람객들과 함께 사유하고 공유하는  
시간을 갖는다.

토론에는 평론을 집필한 임수영 독립 큐레이터  
가 참여해 작가와의 심도 있는 대화를 펼친다. 임  
큐레이터는 분석 미학 연구자로 창의성 및 환경 문  
제에 대한 문제의식을 토대로 연구와 강의를 진행  
하고 있다. 광주비엔날레재단 특별전  
'MaytoDay'의 공동 기획자로 참여한 바 있다.

이번 전시 'Post Genesis: 새로운 연대'는 미디  
어 기술을 활용해 제작된 인터랙티브 설치와 프로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젝션 맵핑, VR 등과  
연계한 현실과 가상,  
소비와감시사이의 경  
계를 조망하고 있다.  
특히 임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기술과 문명  
의 발전이 초래한 사회  
적 변화와 이면을 깊이  
있게 탐색한다.

지맵 관계자는 이번  
'작가와의 대화'에 대  
해 "디지털 환경에서의 인간의 경험이 어떻게 재  
구성되며, 기술 발전이 가져올 사회적, 생태적 문  
제가 어떻게 발현되는지 다양한 관점에서 논의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제 70회 호남예술제 입상자-발레

<p>&lt;심사위원&gt; 박경숙 (광주시립발레단 예술감독) 문종숙 (세한대 교수)</p> <p>◇ 클래식 독무 초등부 3,4학년 ▲ 금상 1 서시은 (윤리초4) ▲ 은상 2 정하은 (광주효덕초4) ▲ 동상 5 김채빈 (조봉초4) 8 윤주아 (광주계림초4)</p> <p>◇ 클래식 독무 중등부 3학년 ▲ 은상 ▲ 은상 1 조민규 (장덕중3) ▲ 동상 2 이서진 (신가중3)</p> <p>◇ 클래식 독무 고등부 1,2학년 ▲ 금상 1 김주현 (전대사대부설고2)</p> <p>◇ 클래식 독무 초등부 5,6학년 ▲ 금상 13 송지민 (태봉초6) ▲ 은상 11 박선우 (유촌초5) ▲ 동상 3 박소울 (큰별초6) 8 김하연 (미산초5) 9 이승민 (양지초5) 12 이루다 (태봉초5) 14 김서울 (광주광천초5)</p> <p>◇ 클래식 독무 중등부 1,2학년 ▲ 최고상 3 조예빈 (광주동신여자중1) ▲ 금상 4 박시은 (광주송원중2)</p>	<p>9 김아현 (광주경신중1) ▲ 은상 5 양정운 (대자중1) 6 박정현 (금호중앙중1) 7 노연서 (서강중1)</p> <p>◇ 클래식 독무 고등부 1,2학년 ▲ 금상 1 김주현 (전대사대부설고2)</p> <p>◇ 클래식 군무 초등부 ▲ 최고상 2 이루다 외 6 (태봉초2-5) ▲ 금상 4 박채원 외 16 (광주송원초2-6) ▲ 은상 1 이설아 외 4 (새별초1-4) 5 이지수 외 19 (광주살레시오초 3-6) ▲ 동상 3 조아윤 외 11 (광주삼육초2)</p> <p>◇ 창작 독무 초등부 1,2학년 ▲ 금상</p>	<p>8 박지윤 (광주송원초2) ▲ 은상 1 오로라 (광주송원초2) 3 조인화 (광주송원초2) 5 임나운 (태봉초2) ▲ 동상 2 양정서 (광림초1)</p> <p>◇ 창작 독무 초등부 3,4학년 ▲ 은상 11 심은지 (광주서림초3) ▲ 동상 1 편가은 (연제초4) 2 백수민 (만호초4) 9 박리원 (광주송원초3) 13 오하린 (태봉초4)</p> <p>◇ 창작 독무 초등부 5,6학년 ▲ 은상 5 부트리아 (광주광천초6) ▲ 동상 4 문서하 (주월초5) 7 박시우 (태봉초5)</p> <p>◇ 창작 군무 초등부 ▲ 금상 1 김태린 외 19 (광주삼육초2-6)</p>
--	---	--

※ 장려상 입상자는 호남예술제 홈페이지를 참조 바랍니다.

## 올해 시도민이 함께 읽을 책은?

전남대 도서관 '한 책 선정위원회' 후보도서 심사... 다음달 발표

시도민이 함께 책을 읽고 독서토론을 하는 '광  
주-전남이 읽고 독하다' 한 책 선정을 위한 토론회  
가 열렸다.

전남대 도서관(관장 최민홍)은 지난 13일  
'2025년 한 책 선정위원회' 회의를 정보마루 컨퍼  
런스홀에서 개최했다.

이 날 회의에는 한 책 선정위원 17명 및 업무 관  
계자 등이 참석해 후보도서 13권을 심사했다. 선  
정위원회에는 지역 대학도서관, 문화예술 전문기  
관, 언론기관, 지역 서점 대표, 독서클럽 대표 등  
이 포함됐다. 선정위원들은 모든 시도민이 읽을  
수 있으며 시민의식을 향상시킬 수 있는 대표성,  
독서토론 문화 활성화라는 목표성과 다양한 주제  
로 토론이 가능한 확장성 등을 주요 기준으로 후보  
도서에 대한 논의를 펼쳤다. 또한 작가초청 특 콘  
서트, 테마도서 전시회, 문학기행 등 다양한 프로  
그램으로 활용이 가능하며 시도민이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부분 등도 고려했다. 이날 후보도서 10권  
은 사전에 지역 대학도서관이 추천한 소설, 에세



2023년 선정 '아버지의 해방일지' 2024년 선정 '메리골드 마음 세탁소'

이, 인문, 과학 등 다양한 책이 거론됐다.

전남대 도서관은 6월 중으로 '올해의 한 책'을  
선포할 예정이다. 이후 프로그램으로 독서클럽 운  
영, 한 책 N행시 챌린지, 한 책 도서교환전, 테마도  
서전시회, 작가 초청 한 책 특 콘서트, 한 책 문학  
기행, 독서후기 공모전 등이 진행된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wilo**

## 대한민국 판매 1위 펌프 윌로펌프

강력한 성능! 합리적 가격!  
농사용 펌프도 역시 윌로펌프

전국 132개 서비스망